

월드컵 예선, 29년만에 평양서 축구 남북대결

한국, 북한·레바논·투르크·스리랑카와 H조...9월~내년 6월까지 경기
10월 15일 北 원정 일정...10년전엔 평양개최 꺼려 中 상하이서 A매치

축구 태극전사들이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진출 티켓을 놓고 레바논, 북한, 투르크메니스탄, 스리랑카와 맞붙게 됐다.

한국은 17일(한국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아시아축구연맹(AFC) 하우스에서 열린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조 추첨에서 네 팀과 같은 H조에 편성됐다.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은 FIFA 랭킹으로 추린 34개국과 하위 순위 12개국 중 플레이오프를 통한 6개국 등 총 40개국 5개 팀씩 8개조로 나눠 9월부터 내년 6월까지 진행된다.

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팀당 8경기씩 치르며 각 조 1위 8개국과 각 조 2위 중 성적이 좋은 4개국 등 총 12개국이 월드컵 최종예선에 오른다.

이날 조 추첨식에서는 올해 6월 14일 발표된 FIFA 랭킹을 기준으로 한국은 톱스드인 1번 포트에 배정됐고, 조 추첨식에는 파울루 벤투 축구 대

표팀 감독이 참석했다.

하지만 2번 포트 국가로 박항서 감독이 지휘하는 베트남과는 2차 예선 대결이 불발됐다.

벤투호는 애초 3월 26일 친선경기를 벌일 예정이었지만 베트남 대표팀의 일정 때문에 맞대결이 무산됐고, 올해 1월 AFC 아시안컵 때도 나란히 8강에서 탈락해 맞붙지 않았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이날 한국 대표팀이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에서 북한과 같은 H조에 편성된 것과 관련해 "대표팀 지원팀 판단으로는 북한 원정경기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국 대표팀은 올림픽 2차 예선 대진표상 올해 10월 15일 북한과 원정으로 3차전을 치르게 돼 있다.

한국 대표팀이 A매치(국가대표팀간 경기)에서는 1990년 10월 11일 친선경기 이후 무려 29년 만에 북한 평양에서 경기를 벌이는 장면이 연출될 가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조 추첨 결과



능성이 커진 것이다.

앞서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3차 예선과 최종예선 때 북한 원정 일정이 있었지만 북한이 평양 개최를 꺼려 두 번 모두 '제3의 장소'인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됐다. 당시 남북 관계가 경색돼 북한이 안방에서 예기가 연주와 태극기 게양에 부담을 느껴 3국 개최를 고수했다.

특히 분단 이후 첫 북한 원정으로 치러진 1990년 10월 11일 평양 경기는 남북 통일축구 이벤트 성격이 강했던 만큼 벤투호가 사실상 첫 평양 남북

대결 A매치를 하는 셈이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북한이 최근 AFC컵 등 아시아축구연맹 주최 대회를 안방에서 개최하고 있다"면서 "여자 대표팀의 아시안컵 예선 평양 경기 도 정상적으로 열렸다"고 설명했다.

윤덕여 전 감독이 이끄는 여자대표팀은 작년 3월 북한 김일성경기장에서 열린 아시안컵 예선에 참여했고, 북한을 제치고 1위에 주는 본선 티켓을 따냈다.

2차 예선 조 추첨식을 주최한 AFC도 북한 원정의 정상적인 개최를 낙관했다. /연합뉴스



펠리페

광주 FC는 아직 배고프다

'K리그2' 내일 안양 원정 20경기 무패·팀 7연승 도전

프로축구 광주FC의 역사는 계속된다. 광주가 오는 20일 오후 7시 안양종합운동장에서 FC안양과 2019 K리그2 20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광주는 앞선 서울이랜드와의 원정경기에서 2-0승리를 거두면서 K리그2 2회 연속 무패 기록을 '19경기'로 갈아치웠다. 기존 최고 기록은 경남FC가 가지고 있던 18경기다.

이와 함께 광주는 팀 최다 연승 기록도 '6'으로 늘렸다.

19경기 연속 무패 행진 속에 2위 부산아이파크와의 승점을 7점 차로 유지한 광주는 안양으로 가서 기록 경신에 나선다.

19경기를 8실점으로 막은 든든한 방패를 앞세운 광주는 다양해진 공격 루트로 상대를 공략하고 있다. 14골로 득점 1위를 달리고 있는 펠리페에게 수비가 집중되는 틈을 타 2선 자원이 득점을 기록하면서 팀의 연승을 이고 있다.

서울과의 원정경기에서 윌리안은 1골 1도움을 기록했다. 이 활약을 바탕으로 윌리안은 19라운드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김경환도 이 경기에서 골 맛을 봤다.

여봉훈은 18라운드 안산전에서 오랜만에 선발로 나서 결승골로 팀 승리를 이끌기도 했다.

윌리안이 경구누적으로 이번 경기에서 나서지 못하지만 다양해진 로테이션이 힘을 실어준다. 물 오른 기량을 뽐내고 있는 두현석과 특급 신인 엄원상 등이 출격 대기 중이다.

안양은 9승 4무 6패로 3위(승점 31점)에 올라 있다. 역대 전적(6승 5무 4패)이나 최근 맞대결에서도 광주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하지만 안양의 최근 기세가 좋다. 팔라시오스(5골), 조규성(9골), 알렉스(6골) 등 빠른 스피드를 이용한 역습 축구와 함께 탄탄한 경기력으로 최근 4연승을 기록하고 있다.

또 안양은 올 시즌 광주에게 유일한 2실점을 안겨준 팀이기도 하다.

광주는 중원의 활발한 움직임으로 상대의 역습을 차단하고, 연계플레이를 통해 상대의 골문을 노려야 한다.

광주가 안양의 상승세를 잠재우고 7연승에 성공할 수 있길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안치홍 "KIA는 지금부터 시작"

시즌 초 손바닥 부상에 타격 페이스 잃어 전반기 37타점 아쉬운 성적
예비 FA·팀 주장·중심타자 책임 막중... "후반기 해결사로 돌아오겠다"



아쉬움만 남은 전반기를 뒤로하고 KIA 타이거즈 안치홍이 후반기 '해결사'를 꿈꾼다.

안치홍의 2019시즌에는 많은 것이 담겨있다. 팀을 대표하는 타자이자 주장, 그리고 '예비 FA'까지 해야 할 역할이 많다.

하지만 전반기를 돌아보면 아쉬움만 가득하다. 지난 시즌에는 자신의 최다 타점을 넘어 역대 투종 2루수 최다타점(118)을 만들며 팀의 가장 믿을 만한 타자로 활약을 했다. 팀의 4번 타자라도 자리를 했지만 올 시즌에는 기회에 약한 모습이었다.

부상도 안치홍을 괴롭혔다. 파울타구에 맞아 다리를 다쳤고 이어 슬라이딩 도중 손가락 인대를 다치면서 재활군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KBO 2019시즌은 18일 경기를 끝으로 전반기 일정을 마감했다. 각 팀 선수들은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오는 26일 후반기 일정을 맞게 된다.

안치홍은 "아쉬움만 남은 전반기였다"며 "팀에 보탬이 되어야 하는데 이기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돌아봤다.

역시 가장 아쉬운 부분은 타점이다. 안치홍은 18일 경기 전까지 37타점을 만드는 데 그쳤다. 초반 손바닥이 좋지 않아 제대로 된 스윙을 하지 못하면서, 결과도 좋지 못했고 자신감도 많이 떨어졌다.

안치홍은 "아무래도 타점 부분이 가장 아쉽다. 처

음 두 달 이상은 플라이도 제대로 못 쳤다"며 "그게(손바닥이) 아픈 부분도 있었고 희생플라이도 제대로 못 치면서 심리적으로도 영향이 컸던 것 같다. 계속 이겨내려고 노력했는데 아무래도 그 기간이 길다 보니까 잘 안 됐다"고 돌아봤다.

모처럼 상승세를 타려는 시점에 찾아온 부상이 아쉽다. 안치홍은 "다치기 전에 (타격감이) 좀 올라오는 느낌이었었는데 예민한 부분을 다쳤다. 약한 관절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부상이 온 게 아쉽다"며 "매년 목표가 부상 없는 거라고 밝혔었는데 한 시즌을 그렇게 못해 본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부상도 실력'이고 '프로는 결과'라는 게 안치홍의 생각이다. 그는 "프로는 경기장에서 나와 시합을 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으로 어디가 안 좋고 그런 건 변명일 뿐이다"며 "행동과 실력으로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걸 못했다. 그런 게 개인적으로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안치홍은 시즌 중반 김주찬으로부터 주장 완장을 물려받았다. 야구를 시작하고 처음 주장을 맡았지만 큰 부담은 없다. "솔선수범"으로 팀을 이끌면서 후반기 안팎에서 주장다운 역할을 하는 게 그의 목표다.

안치홍은 "앞에서 내가 먼저 나서서 하면 후배들도 따라올 것이고 선배들도 잘 도와주고 계신다"며 "선수들이 매 경기 이기려고 화이팅 하고 열심히 한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후반기에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6승' 윌랜드 "이 흐름 후반까지"

덕아웃 T 특특

▲힘 비축하고 있어요 = 생애 첫 올스타전이 기다리는 투수 하준영이다. 고졸 2년 차 하준영은 올 시즌 놀라운 스피드 상승과 함께 팀의 필승조로 활약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하준영은 감독추천으로 오는 19·20일 창원NC파크에서 열리는 '별들의 잔치' 올스타전에 참가하게 됐다. "올스타전 나가는 게 평생 소원이다"고 언급했었던 하준영은 "전력을 다할 생각이다. 힘 비축하고 있다"고 올스타전에 임하는 비장한 각오를 밝혔다.

한편 이번 올스타전에는 KIA의 또 다른 '깜짝 스타' 투수 문경찬과 내야수 박찬호도 감독추천으로 참가한다. 포수 한승택도 교체 선수로 생애 첫 올스타전에 나서게 됐다.

▲이 흐름 후반까지 = KIA 윌랜드는 지난 17일 경기에서 롯데 타선을 6이닝 3피안타(1피홈런) 1볼넷 6탈삼진 1실점으로 막으면서 시즌 6승에 성공했다.

이날 던진 89개의 공 중 61개를 스트라이크존에 꽂아 넣는 적극적인 피칭이었다.

부진을 탈어낸 윌랜드는 최근 4경기에서 2.36의

평균자책점으로 2승 1패를 기록하면서 후반기 기대감을 높였다. 전반기 마지막 등판을 끝낸 윌랜드는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기록이 많은 전반기였다"며 "좋은 흐름에서 전반기를 마칠 수 있어서 좋다. 올스타 휴식기 동안 잘 쉬면서 재충전하고, 지금 흐름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2점 차니까 = KIA는 지난 17일 롯데와의 홈경기에서 문경찬의 세이브로 3-1 승리를 지켰다. 2점 차의 리드에서 등판한 문경찬의 시작은 좋았다.

삼구삼점으로 대타 전병우를 돌려세웠고 전준우는 3루수 땅볼로 처리했다. 하지만 4번 타자 이대호에게 좌전안타를 맞은 뒤 다음 상대 윌슨에게 볼 두 개를 연달아 던졌다.

윌슨은 이날 5회 두 번째 타석에서 윌랜드에게 홈런을 뽑아냈다. 문경찬이 흔들리자 포수 한승택이 마운드로 향했다. 잠시 대화를 나눈 뒤 문경찬은 바로 변화구 두 개로 상대의 헛스윙을 유도했고, 결국 헛스윙 삼진으로 윌슨을 처리했다.

한승택은 마운드 방면에 대해서 "어차피 주자가 무리해서 못 뛰니까 빨리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며 "타자만 신경 쓰고 주자 없다고 생각하고 하고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웃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